

책 대신 골라 드립니다

이달의 추천도서

1월은 새로운 계획과 다짐을 하기에 가장 좋은 달이다.
괜스레 마음이 들뜨는 지금. 좋은 책으로 마음을 다스려보자.
고양특례시 사서들이 엄선한 추천도서를 소개한다.

GOYANG PUBLIC LIBRARY

도서발굴단

책과 문장을 수집하는 고양특례시 사서들의 네이버 포스트. 포스팅은 시기별 이슈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사가 반영된 주제들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도서발굴단
바로가기



귀신나방

저자 장용민 | 출판 엘릭시르
#무채색_레드벨벳이_추천합니다

브로드웨이의 한 극장, 갓 사춘기를 넘긴 소년을 한 남자가 총으로 5발을 쏘 죽이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가 마지막으로 외친 말은 “아들표 히틀러. 너를 내 부모와 형제, 그리고 인류의 이름으로 처단한다!”이다. 히틀러가 죽었다고 선포된 지 한참이 지난 상황에서 그는 왜 어린 소년을 히틀러라고 칭하며 죽였을까? 과거를 회상하며 생체실험, 히틀러, 나치 그리고 그들을 쫓아가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하다. 복잡한 생각을 덜어내고 싶다면 책 속 사건을 추적해 보자.

그때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신이 하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그 인간들에게 천벌을 가하겠다고.



소비단식 일기

저자 서박하 | 출판 휴머니스트
#아무진_세미집순이가_추천합니다

두둑하지 못한 통장, 그에 비해 내 방은 항상 무언가 가득히 들어찬다. 매일같이 오는 택배박스를 보며 언박싱은 그저 귀찮은 행위에 불과하다고 느껴졌다. 그 무렵 이 책을 발견했다. 세상엔 많은 것들이 소비와 연결되어 있다. 당연히 내 마음과도 말이다. 새해를 맞이하여 소비 습관을 뜯어고쳐 보고자 한다면 이 책과 함께 시작해도 좋다. 어느 날 날아든 충격의 카드 청구서, 그로부터 2년간의 소비단식에 대한 이야기다.

소비단식을 한 뒤로는 너무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면 글을 썼다. 코트를 사고 싶으면 그림까지 곁들여서 묘사하며 상상해보기도 했다. 그러고는 코트를 가지고 싶은 이유를 자세히 파고들며 '왜?'라는 질문을 던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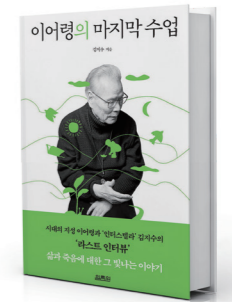


일 못하는 사람 유니온

저자 김종수, 배백합, 없음벨라, 오수경, 여정훈,이서영 | 출판 알에이치코리아
#지옥의_공리주의자가_추천합니다

페이스북 그룹 '일 못하는 사람 유니온'은 2014년 7월, 처음 만들어진 이후 대놓고 '일 못함'을 인증하는 공간으로 유명해졌다. '일못 유니온'의 필진들은 모두가 '왜'라고 의문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저 일 못하는 사람으로 평가받은 것을 분하게 여기고 좌절감에 빠져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왜 내가 그런 식으로 평가당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되물어야 한다. 일 잘하는 사람도 일 못하는 사람도 모두 행복한 일터를 꿈꿔본다.

나는 일 잘한다. 그런데 어딜 가나 한 명쯤은 나와 호호미 맞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겠나. 그 사람이 내 상관이고 직장의 파트너라면 나도 '일못(일 못하는 사람)'이 될 뿐이다. 그래서 나도 인정하기로 했다. 사실 누구나 일못일 수 있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저자 김지수, 이어령 | 출판 열림원
#천사소녀_담정너가_추천합니다

시대의 지성 이어령과 그의 제자 김지수 사이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간다. 대화 속에서 이어령이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삶을 살아왔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느낄 수 있다. 자신의 삶은 모두 선물이라고, 꿈은 지속하는 것이며, 신념을 가진 사람을 경계하라는 그의 말이 다시 마음을 다잡게 해준다. 이어령은 삶과 죽음에 대해 묻는 제자에게 은유와 비유로 가득한 답을 내놓으며, 세상에 남을 제자들을 위해 담담한 위로를 전한다.

우리는 영원히 타인을 모르는 거야. 안다고 착각할 뿐. 내가 어머니를 아무리 사랑해도 어머니와 나 사이에는 얽은 막이 있어. 절대로 어머니는 내가 될 수 없고 나는 어머니가 될 수 없어.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위선을 떨지. '내가 너일 수 있는 것'처럼.